

‘인체의 신비전’ 해외서 다시 고소, 청두 전시회 어디로 갈 것인가

[망후이왕]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비난 받은 ‘인체 표본 전시회(한국 명 ‘인체의 신비’)가 중국 청두(成都)에서 전시한지 두 달째에 들어섰을 때, 이번 전시회 주체 측 사장 쉐이훙진(隋鴻錦)의 ‘스승’ 겸 협력자며, ‘인체 표본’의 창시자인 군터 폰 하겐스의 첫 번째 ‘인체 표본’ 장기 전시회가 2월 28일 독일에서 개막됐다. 청두 전시회와 다른 점이라면 전시회 개막 전에 독일 베를린 미테구(區)에서 이 전시회를 고소한 것이며, 동시에 이 전시회에 관련된 시신 출처도 재차 주목을 끌고 있다.

‘독일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베를린 중심 TV 탑 아래에 있는 이 ‘인체 박물관’에는 20여 구의 여러 자세의 시신 표본과 2백여 개의 장기, 뼈와 인체 조직이 진열됐다. 이 ‘인체 박물관’은 거대한 논쟁을 일으켰다. 독일 대학연구기관 해부학연합 이사회 대변인 볼프강 쿠머는 인체 표본전시회 행위와 전시 용품은 해부학연합의 전문성과 도덕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테구는 이미 이 전시회를 두 차례 고소했으며 소송은 베를린 고등법원에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

하겐스의 인체표본 전시회는 세계 각지에서 모두 아주 큰 논쟁과 저지를 받았다. 뉴욕에서 열린 군터 폰 하겐스의 시체전시회에 대해 검찰은 시신 기부자가 모두 자연 사망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하겐스의 인체전시회를 아예 금지했다. 이밖에 하겐스의 시신 출처 역시 언론의 주목 대상이었다. 비록 하겐스가 그의 시신 출처가 북미와 유럽 기증자라고 밝혔지만 그의 회사 기록에 따르면 하겐스가 중국 다롄(大連)에 세운 자회사에는 647구의 완벽한 시신이 있으며 이런 시신의 출처는 모두 중국이었다.

1월 21일, ‘더 비전 타임스(The Vision Times)’는 최근 한 네티즌이 블로그에 ‘시신 전시회’와 중국공산

당의 관계를 발표했다가 공산당 사 이버경찰에 의해 즉시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이 블로거는 “시체 가공 공장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신이 있으며, 하겐스의 업무는 다롄시 정부, 공안부, 현지 병원과 감옥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2년 왕리쥘(王立軍) 전 공안부장이 미국 영사관으로 도주해서야 공장이 비로소 문을 닫았다.”라고 말했다.

미국 디스커버리연구소 수석연구원이자 생명윤리문화센터 상담가인 에슬리 스미스(Wesley J. Smith)는 2013년 ‘내셔널 리뷰 온라인’에 ‘파룬궁(수련자)을 암살해 예술로 삼다’란 제목의 문장을 발표했다. 이 문장은 중국 문제 전문가이자 작가인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의 심도 있는 보도 ‘전시중인 유체’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노인 여성 파룬궁수련생이 참을성 있게 나에게 하겐스와 쉐이훙진이 전시한 시신이 파룬궁수련생이며, 이 몸서리치는 것을 전시해 사람들이 오락으로 삼게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들의 발언을 소홀히 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엔나에서 나는 어떤 인체 표본에는 간장과 신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그들은 이런 신체를 이중 용도로 삼아 표본으로 만들기 전에 장기를 적출한 것이 아닐까? 이런 신장과 간장은 아마 아직도 연로한 중국인, 일본인, 유럽인과 미국인 몸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1999년, 하겐스는 그의 공장을 중국 다롄시 첨단기술원구로 이전해 ‘폰 하겐스 생물소화(生物塑化)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이 해는 바로 중국 공산당 당국이 파룬궁 탄압을 시작한 해이기도 했다. 당시 다롄시 시장이었던 보시라이가 이 회사를 비준했다. 홍콩 ‘개발’ 잡지는 보시라이, 구카이라이 사건이 발생해서야 시체 가공공장 흑막의 일각이 폭로됐다고 전했다.

하겐스의 학생이었던 쉐이훙진은 하

겐스의 인체 가공공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그는 1999년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 줄을 대어 하겐스의 인체 공장을 중국에 도입해 다롄에 자리 잡도록 관계를 맺어 주었으며, 2002년에는 자신의 인체가공 공장을 별도로 설립했다. 인체 표본 전시회와 시신 판매로 인해 쉐이훙진은 세 개 회사를 가진 억만장자가 됐다. 이번에 청두에서 개최한 인체의 신비전은 쉐이훙진의 수하인 다롄 진스탄(金石灘) 전시회관에서 주최한 것이다.

인체의 신비전은 국제 윤리를 어기고 인류의 존엄성을 침범한 이유로 금지되고 고소당했다. 그 시신 출처의 추문에 대해 조사 요구를 당한다면, 똑같은 청두의 전시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피부가 벗겨진 채 각종 자세를 취한 동포의 시신을 마주하고, 게다가 주최측은 관련 수속을 밝힐 수도 없고 합리적인 해명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침묵을 지키며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이 ‘공포적인 전시회’를 중지하라고 해야 하며 시신 출처를 조사하라고 호소해야 한다. 이는 양심의 선택만이 아닌 최소한 ‘사람’이 되는 기본 존엄성에 대한 수호인 것이다!◇



그림 : 2006년 4월 20일 안니는 자신의 체험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하늘에 사무치는 죄행을 폭로했다

대만 경찰의 이야기와 충고

(밍후이 기자 정위엔 대만 타이베이 취재 보도)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에 대해 탄압을 발동하자 당시 아직 대학생이었던 판이안은 매우 궁금했다. 그는 왜 파룬궁만 탄압하는가? 문화대혁명과 6.4 천안문 학살사건이란 역사적 사실이 인정하는바 중공은 분명 박해를 하고있는데 판이안은 진상을 알고 싶었다.

판이안은 직접 파룬궁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했다. “처음으로 ‘전법륜’을 봤을 때 이것은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두세 번 읽고 나니 이 책은 사람에게 어떻게 수련하라고 가르쳐주는 고덕(高德) 대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모든 의혹은 확 풀리고 모든 답안을 찾았으며 생명의 의의를 알게 됐습니다.” 2000년에 판이안도 파룬궁수련을 시작했다.

제대한 후 이안은 경찰시험에 합격해 경찰이 됐다. 직무를 집행할 때 이안은 형형색색의 사람과 천태만상의 생활을



판이안

접촉할 수 있었다. 특히 퇴폐적인 현장에 가서 조사할 때 ‘명리색기(名利色氣-명예, 금전, 색욕, 분노)’의 유혹이 적지 않았다. 이안은 말했다. “어떤 때 마음을 움직이나 즉시 수련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온하게 해야 할 직무를 완성했습니다. ‘진선인’이란 마음의 척도가 있어 유혹의 수렁에 빠지지 않으니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판이안은 파룬궁을 수련한 지 벌써 15년이 됐다.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폭로하여 진기한 대륙 동포들이 진상을 알수있게하기 위해 판이안은 늘 ‘중국공산당 생체장기적출’ 퍼포먼스에서 대륙 공안의 역할을 맡았다.

한 선량을 보호하고있는 대만 경찰이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는 중국 공안을 연출했는데 그는 마음속으로부터 박해에 참여하는 중국 경찰의 행위는 가치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중공이 파룬궁 단체를 박해하는 것은 ‘집단학살죄’, ‘반인류죄’와 ‘고문죄’를 범한 것을 알아야하며 박해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개인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면 일부 대륙 경찰들에게 진심으로 충고했다. “명령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이 있는 것이며 천리와 양심에 절대 흐릿하거나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빨리 깨어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영원한 행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파룬따파가 나의 생명을 구했다

[밍후이왕] 나는 성이 왕 씨고 올해 73살이며 랴오닝성 차오(朝陽)양시에 살고 있다. 2013년 3월 몸이 불편해서 성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10여 일 후 의사는 임파선암으로 판정했고 시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했다.

약물치료는 역겨워서 자주 토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으며 괴로움이 죽는 것만 못했다. 체중도 원래 70kg에서 40kg으로 줄었고 뼈만 남았다. 나중에 병원 주임은 돌아가 후사를 준비하라고 했다. 딸은 수의와 관을 구매했고 친척들은 마지막 인사하러 왔다.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다섯째 동생은 말했다. “병을 고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하면 대법 사부님이 생명을 구해주실 겁니다.”

동생의 병도 대법 사부님이 제거해주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동생이 탄광에 출근할 때 한번은 석탄차 고장으로 넘어져 분쇄성 골절이 됐다. 동생이 파룬따파와 사부님

을 굳게 믿었기에 매우 빨리 회복됐다. 나의 아내도 파룬따파 수련생이다.

그녀도 나에게 말했다.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염하면 대법 사부님께서 생명을 구해주실 거예요.”

사실과 생사의 고비에서 나는 대법을 선택했다. 나는 밤낮 쉬지 않고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진심으로 염했다. 입원했을 때부터 나는 병상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병실 환자와 간호사들은 모두 놀랐다. 모두 대법이 좋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파룬궁 진상 소책자를 보았고 병은 하루가 다르게 호전됐다. 종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다. 약물치료를 받을 때 머리카락이 다 빠졌었는데 다시 검고 빼곡히 자라고 있다. 또한, 같은 연령대 사람들보다 젊어 보였다.

파룬따파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고 대법 사부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해주셨다. 나는 사부님께 감사드리고 파룬따파에 감사드립니다.



연변박해소식

길림성 연변 주 훈춘시 쑤구이잉과차오 구이잉은 불법으로 구치소에 감금되다

2015년 3월 28일 좌우에 65세좌우인 훈춘시 파룬궁수련생 쑤구이잉(孫桂英)이 납치됐다. 3월 31일, 쑤구이잉은 경찰에 의해 병원에 끌려갔었는데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북방의 봄날은 아직도 추웠지만 그는 끝신에다 아주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입은 옷은 혼잡했을 뿐만아니라 얼굴색은 창백해져 매우 허약해 보였다고 했다. 현재 쑤구이잉과 차오구이잉(曹桂英家)은 구치소에 감금되어 박해 받고있다.

3월 30일 오후 5시좌우에 국보대대와 형정대대, 파출소 등 세곳에서 함께 파룬궁수련생 차오구이잉의 집에 들이닥쳐 불법으로 집수색을 했다. (30일 오후 2시경에 차오구이잉은 세인에게 파룬궁진상을 알리던 중 납치됐다.) 아무런 물건도 찾아내지 못하자 벽에 붙혀놓은 두장의 년화(年畵)를 가져갔다. 그들은 위에서 임무가 내려왔기에 사람을 붙잡는 것은 우리 세곳의 임무 라고 했다. 공산사당은 정말로 극도로 나쁜일을 하는데 나쁜 사람은 붙잡지 않고 전문 좋은 사람만 붙잡아 임무지표를 채우는 것이다.